귀국전을 열면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Arts Council Korea, ARKO)는 1995년 이탈리아 베니스 자르디니에 한국관을 건립한 이후 국제예술계에서 한국 현대미술 및 건축의 지평을 꾸준히 넓혀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열렸던 2016년 국제건축전은 한국관이 자르디니 공원 안에 26번째이자 마지막 국가관을 건립한 이후,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10번째로 개최한 건축전으로서 그 동안의 역할과 성과에 대해 점검 받는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한국관은 개막전부터 국내외의 건축계, 예술계 및 언론의 주목과 호평을 받았습니다. 약 60만동에 해당하는 방대한 데이터 분석을 시도한 한국관 전시는 영국 가디언지를 포함한 주요 매체에 보도된 바 있고, 미국 뉴욕타임스에서는 '놓쳐서는 안 될 6개 국가관'중 하나로 한국관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베니스비엔날레에서의 6개월 간의 전시가 종료된 이후, 한국관 공간의 제약으로 인해 보여드리지 못한 부분을 보완하여 아르코미술관에서 귀국전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세계 무대속에서 인정받은 이 전시를 국내에 직접 선보이고, 아울러 관심있는 분들과도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쁜 마음입니다.

두 달간의 귀국전 전시를 통해 <용적률 게임>이 한국인의 일상 그리고 한국사회와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나아가 사회문화적 맥락속에서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게되는 의미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귀국전을 준비해주신 김성홍 예술감독 그리고 5인의 공동큐레이터, 참여건축가, 작가, 스태프 모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17년 3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박명진